

Suicide Prevention Center

■ 설립취지

‘수원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살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원시에서 매년 약 130여명이 자살로 인해 사망하며, 1,500여명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살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자살 당사자 및 가족이나친구 등 주변인들이 겪게 되는 정서적 어려움으로 연결되기때문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만들어 냅니다.이에 본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 자살을 시도한 사람, 주변인의 자살로 정서적 충격을 지니는 자살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기관연혁

- 1998. 7 : 수원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역학조사 시작
- 2000. 3~2001.4 : 응급실 내원 음독 자살시도자 모니터
- 2001. 2 ~ 4 : 지역사회 내 연계망 구축
- 2001. 4 : 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회 발족 / 설립
- 2001. 4 : 자살예방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담교육일정 홍보
- 2001. 5. 2 ~ 16 : 자원봉사자 전화상담 교육
- 2001. 6. 18 ~ : 자살예방센터 24시간 전화상담 개시 (Tel:214-7942)
- 2001. 7 : 지역사회 내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상담

■ 사업내용

24시간 응급전화상담 (☎ Hot-Line 031-214-7942)

● 위기상담

24시간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는 전화상담으로서 지역사회내 가족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등 정서적으로 위기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상담을 제공하여 자살계획의 실행을 막는다.

지역내 의료기관의 응급실방문 자살시도자 상담

● 자살시도자 위기상담

자살을 시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지속적인 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치료 등)을 실시하여 재시도를 예방

● 자살피해자 서비스 제공

자살로 인해 사망한 환자의 가족 및 친구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CONTENTS

우리는 왜 자살을 이야기 할까요?	3
전체 자살 사망률	4
일반인이 생각하는 자살편견 10가지	5
자살은 미화(美化)될 수 있는가?	6
희비가 교차하는 그 순간	7
수원여성의 전화	8
경기도 청소년 상담실	8
LA 자살예방센터 방문기	9
전화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10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12
나는 행복합니다	13
상담전화 분석	14
센터 OPEN	16
제1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담교육	16
제2기 자원봉사자 상담교육 프로그램	16
매스컴 보도	17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분	18
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	18
후원인, 자원봉사자 모집	19

- 통 권 / 창간호
- 발행일 / 2001. 9. 1
- 발행인 / 조 준 필
- 발행처 / 자살예방센터

우리는 왜 자살을 이야기 할까요?



조준필 교수
자살예방센터장

제가 매일 출근하여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 응급실은 소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물론 가벼운 증상의 환자가 더 많습디다만, 하루에도 몇 명씩은 사망환자가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어 생명력이 다하여 자연사하는 경우에서부터 암이나 뇌졸중, 사고에 의한 손상, 심혈관질환 등등 죽음에 이르는 원인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과는 아주 다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의적으로 죽음을 가하는 자살이 그것입니다. 자살의 원인에 대하여는 한마디로 이야기 할 수 없겠지요. 생물학적인 것에서부터 사회심리학적인 여러 원인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자살 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도 많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죽고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 80%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가 자신의 자살생각을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살 시도자들이 그렇게 죽으려고 애쓰는데 죽게 내버려두지 못하려고 살리려 애쓰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의 이웃으로 생각하는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살다보면 우리들도 때로는 어떤 절박한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지 않을까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이 응급실이라고 말씀 드렸습디다만 그렇다고 삶과 죽음이 응급실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 중 어느 곳에선가 어떤 절망감에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원시에 자살예방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전담 직원은 사회복지사 2명이 있습니다만, 3주간 전화상담 교육을 마치고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일년 365일, 하루 24시간 자살 위기 상담을 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들과 자살예방센터가 가능하도록 물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후원회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한 자살예방센터가 지금보다 질적으로 나은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자살의 위기에서 고통 받고 있던 이들 모두가 건강한 우리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자살 사망률

인구 십만 명당 전국과 수원의 자살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지속적으로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997년 IMF 이후 자살률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9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전국이 17명, 수원이 13명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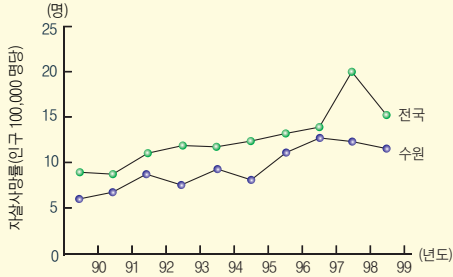


그림 1. 자살 사망률

현재 전국의 인구가 약 5000만 명이며 수원시 인구가 약 92만 명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전국적으로 1999년에 자살로 사망한 인구는 전체 약 8000명, 수원시만도 약 12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1명의 자살 사망자가 있을 경우 예측되는 자살 시도자는 그 10~15배에 해당하며, 자살을 생각하는 인구는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들다는 것이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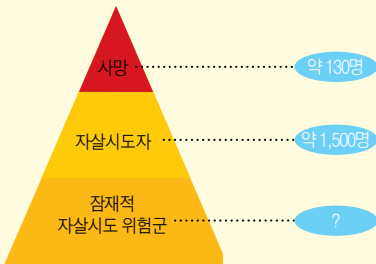


그림 2. 손상 피라미드에 따른 연간 자살

남녀별 자살사망률

전국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자살 사망률이 높았다. (그림 5) 그러나 자살 시도자 역시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고는 볼 수 없다 단지, 남자는 자살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훨씬 공격적이고 치사율이 높은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살 성공률이 여자보다 3~4배 높다. 실제로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에 음독자살을 시도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여자가 64.3%, 남자가 35.7%로 여자가 많았다. 그러나 남자는 주로 제초제, 살충제와 같은 독성이 강한 농약을 선택하는 반면 여자는 수면제 등의 의약품이나 가정용 화학용품을 주로 선택하여 사망자는 남자가 57.4% 여자가 42.6%로 남자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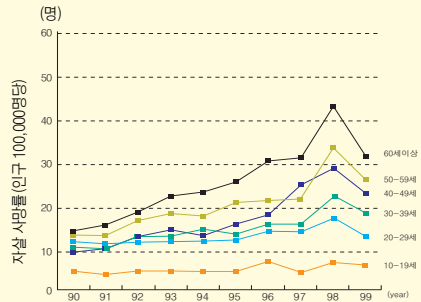


그림 5. 남녀에 다른 자살 사망률

연령별 자살사망률

연령별로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각 연령 인구 10만 명당 6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으며, 전국과 수원을 비교해 볼 때, 다른 연령대 보다 수원시 6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전국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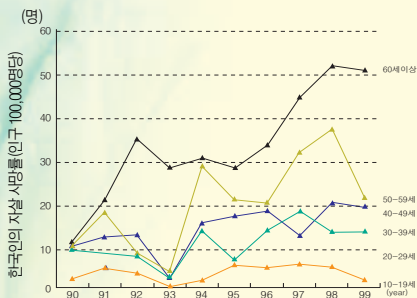


그림 3. 전국 연령별 자살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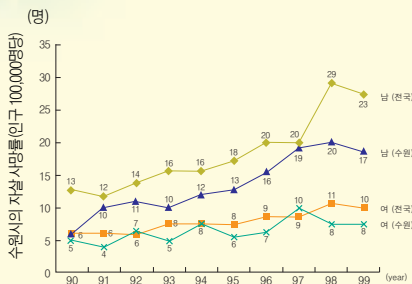


그림 4. 수원시 연령별 자살 사망률

일반인이 생각하는

자살편견 10가지

- 1 자살하는 사람들은 모두 심한 우울증 환자이다.
- 2 사람이 좋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다.
- 3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
- 4 술이나 마약이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5 자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전에 징후나 증상을 표출한다.
- 6 자살하는 사람들은 모두 실제로 죽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 7 자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살률을 증가시킨다.
- 8 자살 위협을 하거나 자해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행동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9 자살자들의 생각은 완전해결 아니면 자살이라는 식의 흑백논리에 사로잡혀 있다.
- 10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자살이 유일한 해결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문항 1 2 3 4 5 6 7 8 9 10

답 X X X O O X X X O O



한진희 교수
성빈센트병원 신경정신과

자살은

미화(美化)될 수 있는가?



신문이나 TV에는 연일 자살 관련 기사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하지만, 자살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자살(自殺)은 개인이 자신에게 고의적으로 부당한 죽음을 말한다. 자살의 이면에는 개인의 인생관이나 심리적 동기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배경들이 어떤 형태로든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살은 개인의 행위인 동시에 사회문화적 산물이다. 자살이란 참으로 삶과 죽음 또는 인생 자체와도 견줄 수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쉽게 어떤 판단이나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대하는 시각 또한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제 측면에 따라 입장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살을 문제삼고자 하는가?



자살 행위에 대하여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자살을 1)이기적 자살, 2)이타적 자살, 3)혼돈적(anomic) 자살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이론은 자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분류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즉, 자살이라는 불가해한 선택을 설명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은 자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살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임을 주지한다면 삶을 배제한 어떤 논의나 이해란 마치 이혼한 부부에게 들려주는 부부학(夫婦學) 강의처럼 때로는 공허하게 들린다. 자살에 관한 논의는 산 사람의 논리이다. 여기서 필자는 정신과 의사이고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건 인간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미국의 시인 프루스트의 '두 갈래난 길'에서와도 같이 인생의 여정을 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岐路)를 만나게 된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러한 일은 아직은 공상소설이나 영화속의 일일 뿐이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의 축(軸)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하나 하나의 선택은 다시 되돌릴 수 없음을 시인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한다. 그러나 똑같은 길을 다시 갈 수는 없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는 있다. 그것은 우리의 생(生)에 주어진 있는 축복일지 모른다.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실의에 빠진 사람이나, 사업이 망해 한순간 절망하더라도 재기에 성공한 사람의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그러나 분명 한 것은, 자살은 그것을 되돌리거나 대신할 수 없는 종점(終點)과도 같은 절대적 명제라는 사실이다. 한때 자살은 문학이나 대중 매체에서 마치 용기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묘사된 적도 있었다.



실제로 독일의 문호 볼프강 괴테(Wolfgang von Goethe)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간된 후 유럽의 젊은이들 사이에 작품의 주인공 베르테르를 흉내내어 자살하는 사례가 유행하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던 일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낭만적 행위로 미화시킬 수 없음을 굳이 여러 연구의 결과를 들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자명하다.

자살은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 사회의 적응에 실패한 사람이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그 메시지에 귀기울일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자살이 그 사람에게 유일한 선택이었을지라도 최선의 대안은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가 자살을 막으려 애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록 고단한 삶이 난관에 부딪혀 좌초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자체가 아름답고 진정 용기 있는 일이기에...

이제 **Today**

희비가 교차하는 그 순간

김혜영 (사회복지사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가 설립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로 평균 하루에 1-2명 정도의 자살시도자를 만나고 있다. 몸 상태가 너무 심해서 제대로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사람에서부터 병원 응급실이 답답하여 링겔을 꽂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까지....

이 일을 시작한 처음, 병원 응급실에 자살을 시도하여 들어온 환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떨리던지... 지금도 환자를 만날 때엔 많이 떨리지만 그 땀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다.

응급처치로 녹초가 된 환자들에게 찾아가 뭔가를 돕고 싶다는 말을 할 때에 어떤 이는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리지만 대개는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금세 그 눈물과 함께 느껴지는 삶에 대한 의지를 엿본다. 단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평범하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데 왜 그렇게 그들 앞에는 장애물들이 많은 것인지.... 그들이 그동안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울분과

마음의 상처들을 토해내는 것을 듣노라면 삶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갖게 되지만 언제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한다' 라는 사실의 확인이다. 어떤 이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려 하느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내부에 삶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어가지 않을 때 한번쯤 스쳐 지나가는 자살생각은 누구나 한번쯤은 일어났음직한 일이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힘겨움을 잘 이겨내고 있어갈 때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봤음 좋겠다. 내가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그리고 내 이 행복감은 현재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 느껴야 할 하나의 권리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떠나는 맘으로 응급실에 방문한다.

수원 여성의 전화



김미경
(자원봉사자)

5월 30일 수요일 오후 자살 예방센터 자원봉사자 교육의 일환인 기관방문 일정으로 “수원여성의 전화”를 방문하게 되었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곳 선생님들의 태도에 편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고, 예상 밖의 체계적인 준비에 우리는 적은 인원이 방문한 것에 대해서 다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전화상담 현황 및 부설 성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의 활동내용을 알 수 있었고 가정폭력피해자 및 성폭력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주로 여성문제를 이슈로 삼는다는 것이 우리센터의 취지 및



의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수원지역의 여성문제,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모든 여성문제를 위해 헌신하시는 그곳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우리 센터도 그 정도의 체계가 잡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실제로 센터가 시작된지 두 달여 지나고 밤도 두어번 새워가며 전화를 기다려 보았지만 정말 보통의 인내와 노력이 아니고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낮시간의 3~4시간과는 또다른 고통이었으며 혼자서 아무말없이 8시간을 버텨내는 것이 여간한 곤혹이 아니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열의와 의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일이 우리 %%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며 한사람한사람의 목숨을 구제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내지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전화상담을 찾는다. 내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줄기 빛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경기도 청소년 상담실

조동연 (자원봉사자)

판매직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사야할지 망설이고, 자기가 고른 물건에 자신 없어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자기에겐 적당한 것인지 인정해 주기 바라는 것을 보았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고 인정해 주는 동행인을 갖고 싶어한다.

자살예방센터 교육이 끝나갈 즈음 우리는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자원봉사 하는 기관을 방문 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청소년 문화회관 내에 있는 경기도 청소년 상담실을 가 보았다.

청소년 문화원 지하에 자리를 잡았고 직원 사무실, 전화 상담실, 집단 상담실 그리고 회의실로 나누어져 있었고 활동은 대체로 학교로 직접 나가서 집단 상담을 하고 계셨다. 그 회 적성검사도 하고 계셨다. 그 곳 실장님께서 상담실에 자원 봉사자들이 안 계시면 운영이 어려울 만큼 자원 봉사자들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힘을 실어 주셨다.

과연 나는 자원봉사자로서 자질이 갖추어져 있나 하고 생각하면 자신은 없다. 하지만, 네가 나를 찾을 때 그 곳에 항상 내가 있다고 생각하게 해준다면 너의 이야기를 비판없이 들어 주고 그 깊은 회의 속에서 고통 속에서 빠져 나오기를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면, 네가 다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만이 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살고 싶어하고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고 싶어하니깐!



LA 자살예방센터 방문기



김혜영 (사회복지사 / 자살예방센터)

수원지역에 너무나도 생소한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몰랐다. 국내에는 자살예방센터라 딱히 이름하고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던 것 같다. 자살예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많은 문헌 고찰이 이루어졌었는데 그중 몇몇의 국내 문헌에서는 자살 예방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LA 자살예방센터를 소개하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가졌기에 이렇게 일찍부터 자살예방센터라 칭하며 사업들을 벌어나갈 수 있을까 매우 궁금해졌다. 그리고 직접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 그곳 기관과 연락을 취하고 스케줄을 맞춰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다.

외국 유학도들에 의해 고스란히 받아들여진 국내의 많은 정책 및 프로그램들은 종종 한국인의 정서나 현실정과는 너무도 괴리감을 느끼게 할 때가 있다. 공부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유사하게 지적한바 있던 터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관을 방문하였다.

먼저, 이곳 기관의 정식 명칭은 'Didi Hirsch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로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와 유사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의 사업 중 하나로서 자

살예방 사업을 하고 있었다. 즉, 24시간 자살예방을 위한 응급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단기적인 위기 상담과 자살 시도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살예방 교육 등이 있다. 각각의 이들 프로그램은 모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적이기도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었는데 자살예방센터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약간의 실망감도 있었지만 오히려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센터 안에 자리하면서 전체 사업 연계망을 확실히 다질 수 있겠다는 장점을 엿볼 수 있기도 하였다. 기관을 방문하는 동안 마침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상담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전화를 기다리는 자원봉사자들의 일사불란한 모습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특히 센터의 staff이 자원봉사자들의 상담전화를 들으면서 적절히 supervision을 주는 모습은 인력자원이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자살예방센터를 생각할 때 부럽지 않을 수 없었고 상담 자원봉사자들을 지지하고 조언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또한 어느 TV광고의 카피 '눈 덮힌 길길 지나갈 새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길이 되기에 아무렇게나 밟지 않는다' 라는 말을 생각하며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자살예방센터니까 그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나가야겠다는 다짐의 다짐을 하며 수원으로 돌아왔다.

“네, 자살예방센터 전화상담실입니다”

송 희 준 (자원봉사자)

어머니가 가져오신 주보 사이 끼워진 “자살예방센터 상담교육” 안내문을 보게 된 것이 나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다.

우리시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전화상담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고 더불어 그곳에서 기쁜일을 나누며 따뜻함을 가진 매력있는 상담봉사자들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오십여년을 서울에서만 살다가 99년 4월에 500년이 넘었다는 잘 생긴 느티나무가 있는 수원시 영통으로 오게 되었을 때 나는 정말 아는 사람이라고는 누구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웠다고나 할까? 워낙 혼자 있을 것을 좋아하고 도서관이 가깝게 있어서 무료하지는 않았으나 만일 내가 수원에서 다른 누구를 만난다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의 이웃이고 싶었다. 그런 마음속의 바램이 어찌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이가 조금 걱정이 되어 먼저 전화로 문의해 보니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나오시면 된다는 담당자의 상냥한 설명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교육을 받으러 처음 아주대학교로 가는 날, 두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길에 대한 호기심으로 강의실에 도착하였다. 강의실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와 있어 본래 낮가림이 있는 나도 금방 무리 없이 섞여들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1기 교육생이 된 우리는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잘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자살 Orientation, 부부문제 심리상담, 청소년 상담, 전화상담의 이론과 실제, 응급처치 기술 등을 익히기까지 선생님들의 애쓰심으로 잘 배울 수 있었다.



수원시에서만도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이 한 해에 1500명 정도 된다는 조사내용에 무척 놀랐고 이중 10%는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말씀에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 상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노인들의 어려움에 제일 마음이 움직였다. 노령화시대에 힘없는 노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함께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수료식을 끝내고 6월 15일에는 수원 남문에서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사를 가졌다. 214-7942(친구사이)라는 전화번호가 큼직하게 적힌 팜플렛을 보니 번호가 주는 정겨움과 “자살”이 주는 이미지가 아무래도 거북스러워 시민들에게 설명하기가 미안하고 어색하였다.

새롭게 꾸민 상담실의 분위기는 조촐하고 고요해서 마음에 들었고 드디어 6월 18일부터 역사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첫 번째 벨이 울린 것은 6월 29일 김혜영 선생님이 받으신 상담이었다.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하면서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린 나에게 기회가 온 것은 7월 6일 12시30분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고 “네, 자살예방센터 전화 상담실입니다.” 하고 최대한 상냥하고 따뜻하게 마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시작한 상담이었지만 매끄럽지 못한 응대로 하여 서투른 첫 경험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난 믿고 있다. 실망하지 않고 침착하게 전화자의 감정을 읽고 명료화해서 공감해 주고 함께 마음을 나눈다면 점차 좋아지리라는 것을...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자신이 하찮고 비참해 지는 날,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214-7942로 전화해 보세요. 그 곳에서는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친구가 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말이다.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조 경 애 (자원봉사자)

내담자는 70세로 현 거주지는 수원이며 가족과 이웃들을 피해 아침 7시에 집을나와 서울 노인복지회관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늦은 밤 가족들이 잠이 든 뒤에 귀가를 한다고 한다. 이유인즉 내담자 자신이 고령인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워 지금까지도 가족들이 본인에게 극도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집안에서 있으면 잦은 불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며 자녀들 또한 자기를 남처럼 대해 아버지로, 남편으로서 설자리가 없다며 지금의 상황을 자업자득이라면서 많이 후회하고 있었다.

내담자의 부인은 아직도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충격으로 아직까지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 중에 있다고 한다.

어느 날은 모 방송국 TV 프로그램 중에 한 출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00약이 좋더라” 라고 해 몇 년째 거르지 않고 한 달에 한번 서대문에 있는 약국에가서 약을 사다주는 정성도 보이고 있으나 그 약을 복용하면서도 내담자와 마주하게 되기만해도 계속해서 히스테리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내담자는 예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녀들과 부인에게 잘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아직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채 내담자를 힘들게 해 지금은 너무 힘겨워 죽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 그리고 사후, 장기시신 기증을 통해 뜻 있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했다.

상담 후 마음이 다소 무거운 듯 했다.

한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가족들이 소중한 세월동안 어둠의 속에 나날들을 지내야했다는 것은 어느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기에 내담자에 대한 야속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도 내담자께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남은 여생동안 최선을 다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시겠다는 다짐을 듣고 앞으로는 가족들에게 용서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았다. ~할아버지 힘내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전 광 속 (자원봉사자)

바쁜 회사일도 뒤로 하고
봉사 시간 맞춰 퇴근하는 남편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엄마 최고야! 하는
두 아이의 초롱한 두 눈빛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자살예방센터의 여러 봉사자분들의
밝은 미소와 열린 마음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부족한 나에게
이웃을 도울 수 있게 여기에 불러주신
하느님의 사랑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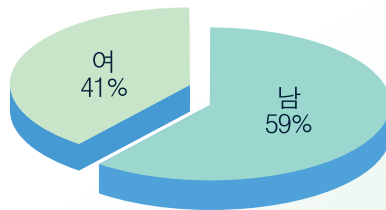


상담전화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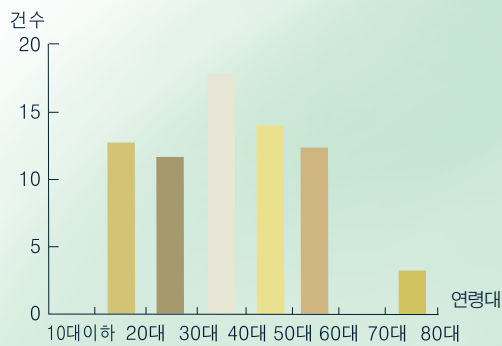
기간 : 6월 18 ~ 8월 22일
총 통화건수 : 5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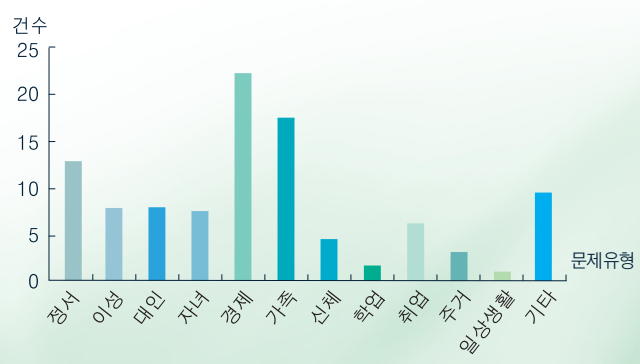
내담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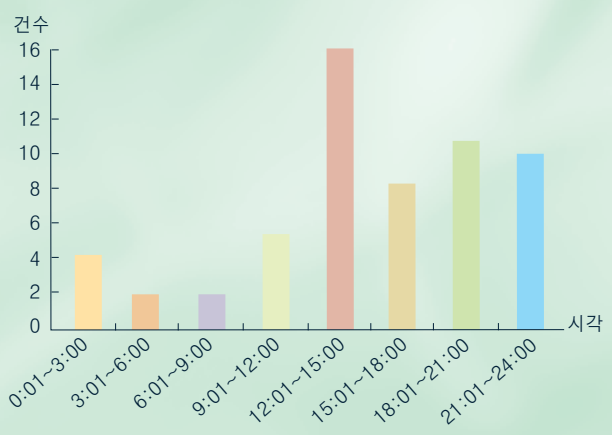
내담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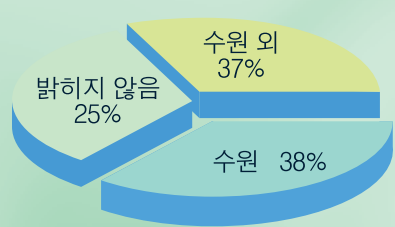
전화상담내용 (자살을 생각하게 된 원인)



상담전화가 걸려온 시간대



내담자 거주지역



수원 외 : 일산, 양주, 의정부, 동두천, 서울, 인천 ...



센터 Open

본 센터에서는 6월 18일부터 24시간 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센터에서 주취한 상담 교육을 수료한 교사, 직장인, 주부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분들이 자살을 생각 또는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24시간 상담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다.

제1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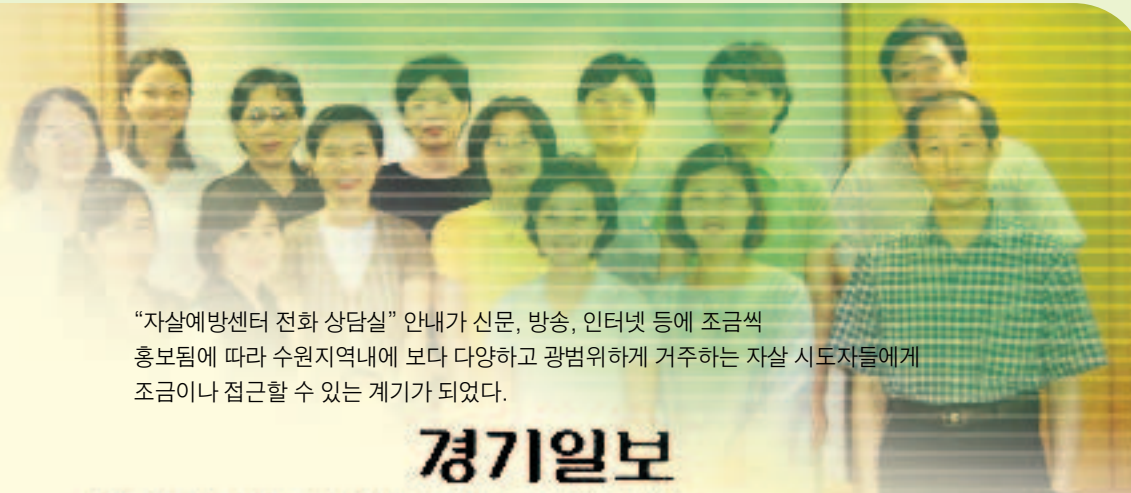
자살예방센터에서는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제1회 자원봉사자 전문 상담교육”을 실시하여 36명이 수료, 25명이 자원봉사를 신청하여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살”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모두 공감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명 지킴이”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제2기 자원봉사자 전문 상담 교육”은 9월 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

제2기 자원봉사자 상담교육 프로그램

날 짜	과 목	강 사	시 간
9월 6일	자살예방센터 Orientation	조준필 (자살예방 센터장)	14:00~14:30
	자살에 관한 이해	박상철 (육군본부 군종 계획 장교)	14:00~16:00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강흥구 (아주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장)	16:00~17:00
9월 7일	전화상담의 이론	하상훈 (서울 생명의전화 국장)	14:00~17:00
9월 13일	인간관계 훈련	김혜영 (자살예방센터)	14:00~15:20
	청소년 이해와 상담	김현미 (경기도 청소년 상담실)	15:30~17:00
9월 14일	가정 · 부부문제 상담	이선희 (가정사목연구소)	14:00~ 5:30
	노인문제 상담	강병만 (한국 노인의전화 국장)	15:40~ 7:00
9월 17일	위기 · 자살 상담	유계식 (아주대학교 상담실 상담원)	14:00~ 5:00
	전화상담 실습 I	김혜영 (자살예방센터)	15:10~ 7:00
9월 10일~ 9월 16일	전화상담 실습 II	김혜영 (자살예방센터)	2시간
9월 18일	응급처치기술 익히기	조준필 (자살예방 센터장)	14:00~ 5:00
	수료식	조준필 (자살예방 센터장)	15:00~ 7:00



“자살예방센터 전화 상담실” 안내가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조금씩
홍보됨에 따라 수원지역내에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거주하는 자살 시도자들에게
조금이나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일보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분

- 1000,000원 - 현재요, 김정산, 한동우
- 500,000원 - 조준필
- 300,000원 - 정윤석
- 100,000원 - 백경원, 김혜영
- 90,000원 - 천주교 수원교구청
- 50,000원 - 김기운, 최상천, 김시영, 윤상규, 정지윤, 허재민
배영신, 강태천, 안현숙
- 30,000원 - 박재섭, 김미향

운영위원

- ▶ 고문위원 : 이호영 (아주대학교 명예총장)
남옥윤 (성빈센트병원장)
고흥식 (영락교회 담임목사)
- ▶ 센터장 : 조준필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소장)
- ▶ 운영위원 : 강흥구 (아주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장)
김궁자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필 (동수원병원 응급센터 소장)
김연홍 (영락교회 목사)
박승현 (성빈센트 병원 응급센터 소장)
배종훈 (밝은마음원장, 정신과 전문의)
손덕식 (아주대학교병원 종교실, 목사)
신문진 (경기 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안젤라 (아주대학교병원 종교실 수녀)
이영문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과 교수)
장성근 (장성근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최혜옥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 예방의약계장)
한진희 (성빈센트병원 신경정신과장)
황금룡 (수원시 안전도시 만들기 협의회)
- ▶ 자문위원 : 김통래 (수원시의원, 재경보사위원장)
하상훈 (생명의 전화(서울) 사무국장)
김혜경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장)
박재빈 (하와이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강세기 (동수원병원 원장, 신경외과 전문의)
박찬병 (수원의료원 원장)

자원봉사자

친구사이(7942)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경진 김동영 김무경 김미경 김영숙(세실리아) 김원중
김정희 김재숙 박인자 박요아 박정미라 백경원 서옥매
송희준 이경숙 이명희 이상화 이효숙 오영화 임경옥
장은자 장혜선 전광숙 정순옥 조경애 조동연 조준필 최연옥

후원인 모집

친구사이(☎ 214-7942) 후원안내

자살예방센터에서는 24시간 응급전화를 설치하여 생명의 고귀함과 삶의 소중함을 나누는 친구사이가 되어 드리하고자 합니다.



- 후원계좌 : 제일은행 692-20-147839
- 예 금 주 : 자살예방센터
- 문 의 : 219 - 5288

Suicide Prevention Center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모집

어려운 주변상황으로 자살을 고민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에게 친구사이가 되어 줄 수 있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 활동시간 : 주 1회 또는 월 1~2회
- 문 의 처 : 자살예방센터 (tel) 219-5288